

2025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공동연구

#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경희대학교 임진택/조민경 입학사정관  
성균관대학교 권영신/김단영 입학사정관  
연세대학교 박정선/이다정 입학사정관  
중앙대학교 차정민/신재희 입학사정관

발표자 : 임진택(연구책임자)



(전문가자문회의/용산역 회의실/2025.2)

# CONTENTS

---

01

연구개요

02

연구결과

03

결론 및 정책제언



# 01 연구 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 입시환경의 변화\_교육부 2028 대입제도 확정(안)

2028년 수능 개편 시안

영역		현행(~2027년 수능)	개편(2028년 수능~)
국어		공통+2과목 중 택1 · 공통: 독서, 문학 ·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3과목 중 택1 · 공통: 수학 I, 수학 II ·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영어 I, 영어 II)	공통(영어 I, 영어 II)
한국사		공통(한국사)	공통(한국사)
탐구	사회·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2 · 사회: 9과목 · 과학: 8과목	· 사회: 공통(통합사회) · 과학: 공통(통합과학)
	직업	· 1과목: 5과목 중 택1 · 2과목: 공통+[1과목]	· 직업: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9과목 중 택1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10과목 중 택1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 고교 내신 5등급제 구별 기준

내신 5등급제 2025부터 도입





# 입시환경의 변화\_교육부 2028 대입제도 확정(안)

## 고교 내신 체계 개편

학년도	구분		상대평가	성취(절대)평가		통계정보				과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추가 자료	
			석차등급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단위수 (학점수)
~2027 학년도	보통교과 (공통/일반선택과목)		9등급	0	-	0	0	-	0	0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		-	0	A·B·C	0	-	0	0	0	-	-
	전문 교과	특목고(전문I)	9등급	0	-	0	0	-	0	0	-	-
		특성화고(전문II)	-	0	A·B·C·D·E	0	-	0	0	0	-	-
2028 학년도~	보통교과 (공통/일반/진로/융합선택)		5등급	0	A·B·C·D·E	0	-	0	0	0	0	·교육 과정 편성 현황
	사회·과학융합선택		-	0	A·B·C·D·E	0	-	0	0	0	0	
	전문교과		5등급	0	A·B·C·D·E	0	-	0	0	0	0	
현재~ (계속)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	A·B·C	-	-	-	-	-	0	
	교양		-	-	P	-	-	-	-	-	0	
~2027 학년도	비고		이수단위	5단위±2 (학년제)			소인수 기준 (등급 미산출)	13명이하				
2028 학년도~			이수학점	4학점±1 (학기제)				5명이하			·수행평가지필평가비율 ·수행평가명 ·성취도별분할점수 등	

# 입시환경의 변화\_2022 개정 교육과정

##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 학생의 과목 선택, 대입 평가 활용

###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총론 <표5>]

※    수능 출제과목 /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기재 과목 :    시안 +    확정안

교과(군)	공통과목 (기초소양)	선택 과목		
		일반선택 (학문별 주요내용)	진로선택 (심화과목)	융합 선택 (교과융합, 실생활응용)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기본수학1 기본수학2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Ⅱ,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영어Ⅰ, 영어Ⅱ,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심화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기본영어1 기본영어2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 영어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 수능에서 제외된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선택

교과(군)	공통과목 (기초소양)	선택 과목		
		일반선택 (학문별 주요내용)	진로선택 (심화과목)	융합 선택 (교과융합, 실생활응용)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기술·가정 /정보		기술·가정	로봇과 공학세계, 생활과학 탐구	창의 공학 설계, 지식 재산 일반, 생애 설계와 자립, 아동발달과 부모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 베트남어 회화 심화 독일어, 심화 프랑스어, (...) 심화 베트남어	독일어권 문화, (...) 베트남 문화  * 8개 언어 모두 각각의 회화/심화/문화 과목 포함
		한문	한문 고전 읽기	언어생활과 한자
체육		체육1 체육2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생활1, 스포츠 생활2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와 창작,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
교양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삶과 종교, 보건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 연구분석의 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도입

석차 5등급제, 절대+상대평가 병기 등 **내신** 체계 도입



- 미적분II, 기하 X
- 탐구2과목 X



- 9등급 → 5등급
- 표준편차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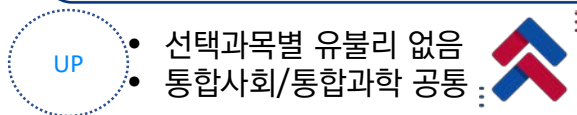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

수능전형



- 선택과목별 유불리 없음
- 통합사회/통합과학 공통

학생부 정성평가 강화



면접 강화

서·논술형 평가 강화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 절대평가 성취도 제공
- 선택과목 수 증가
- 학년제(5±2)→학기제 (4±1)  
과목 수 증가
- 석차등급 과목 증가

고교자료: 학교생활기록부

국가자료: 수능

수시모집

수시 + 정시모집 (유사)

정시모집

본 연구는 정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대학의 2028학년도 대입전형 개선 방향 도출에 목적을 둠



## 연구방법

### 문헌조사·분석

- 교육부가 발표한(2023.12) 2028 대입제도 확정(안) 및 대입추가자료(2025.1)에 대해 교육부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등 기초자료 조사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의 홈페이지 자료, 각종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 분석
- 2028 대입제도 개편 및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방안 등 선행 연구 분석

### 전문가자문회의(FGI)

- 고교 교사 및 장학사, 대학 입학관계자(8명)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시행
- 1차는 델파이조사, 설문조사 등 실증분석 연구 전반에 대한 방향 설계 자문 시행
  - 자문회의 일정: 2024.9.4
  - 자문회의 인원: 8명(교사 5명, 대입지원관 1명, 입학사정관 2명)
- 2차는 문헌조사분석, 설문조사, 델파이조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의 함의, 개선 방안 등 결론 도출 자문 시행
  - 자문회의 일정: 2025.2.11
  - 자문회의 인원: 8명(교사 5명, 대입지원관 1명, 입학사정관 2명)

# 연구방법

## 설문조사·분석

- 설문조사 일정: 2024.11.27(수) ~ 12.10(화)
- 설문 참여 인원: 534명 \*중복응답자 1명 제외
- 설문 대상: 고등학교 교사
- 설문 방법: 무작위로 전국 500여개 고등학교 선정 후, 공문 발송하고 설문링크 공유

### 〈설문 응답 현황: 고등학교〉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	254	47.6
	강원권	12	2.2
	충청권	58	10.9
	전라권	68	12.7
	경상권	138	25.8
	제주권	4	0.7
고교 유형	일반고	483	90.4
	자공고	19	3.6
	자사고	13	2.4
	특목고	19	3.6
설립유형	국·공립	316	59.2
	사립	218	40.8
교직 경력	10년 미만	110	20.6
	10년 ~ 20년	205	38.4
	20년 ~ 30년	172	32.2
	30년 이상	47	8.8
담당 직무	교육과정 담당	64	12
	진로진학 담당	131	24.5
	3학년부 담당	271	50.7
	기타	68	12.7

- 설문조사 일정: 24.11.27(수) ~ 12.13(금)
- 설문 참여 인원: 182명
- 설문 대상: 입학사정관 및 입학처 관계자
- 설문 방법: 고교교육기여대학 참여 대학에 공문 발송, 설문링크 공유

### 〈설문 응답 현황: 대학〉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	139	76.4
	강원권	6	3.3
	충청권	15	8.2
	경상권	22	12.1
학년 당 모집규모	1,000명 미만	8	4.4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31	17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55	30.2
	3,000명 이상	88	48.4
설립유형	국·공립	15	8.2
	사립	167	91.8
근무경력	2년 미만	25	13.7
	2년 이상 ~ 5년 미만	44	24.2
	5년 이상 ~ 10년 미만	55	30.2
	10년 이상	58	31.9

# 연구방법

## 델파이조사

- 고교 교사/장학사 및 대학의 입학관계자 등 경험 많은 입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조사
- 입학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는 주관식 개방형 질문,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객관식 혼용 질문 등 2회 시행
- 참여대상: 35명
- 조사기간: 1차 2024. 9. 10.~9. 23. 2차 2025. 1. 13~1. 20

### < 델파이 조사 응답 현황 >

구분	세부 항목	교사 및 교육청	입학사정관	계
지역	수도권	13	3	16
	충청권	5	-	5
	전라권	3	1	4
	경상권	6	2	8
	강원/제주권	2	-	2
	계	29	6	35

### < 델파이 조사 질문 문항 구성 >

세부 내용		문항수
학생부 교과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2
	전형 방법 제안(학생부 정량평가, 정성평가, 수능최저 등)	3
학생부 종합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2
	전형 방법 제안(학생부 정량평가, 정성평가, 수능최저 등)	3
논술위주 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1
	전형 방법 제안	1
실기/실적 위주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1
	전형 방법 제안	1
수능위주 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2
	전형 방법 제안(학생부 정량평가, 정성평가, 수능최저 등)	3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적합한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방향	1
대입제도 제안	바람직한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실현을 위한 대입제도 정책 개선방안	1

## 02 연구결과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적정 규모

변화된 내신 및 수능 체계에서의 변별력 확보

학생부 교과전형과 수능전형의 서류/면접 정성평가 추가 활용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

출결상황 평가요소 추가 활용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대비한 대입 서·논술형 평가 추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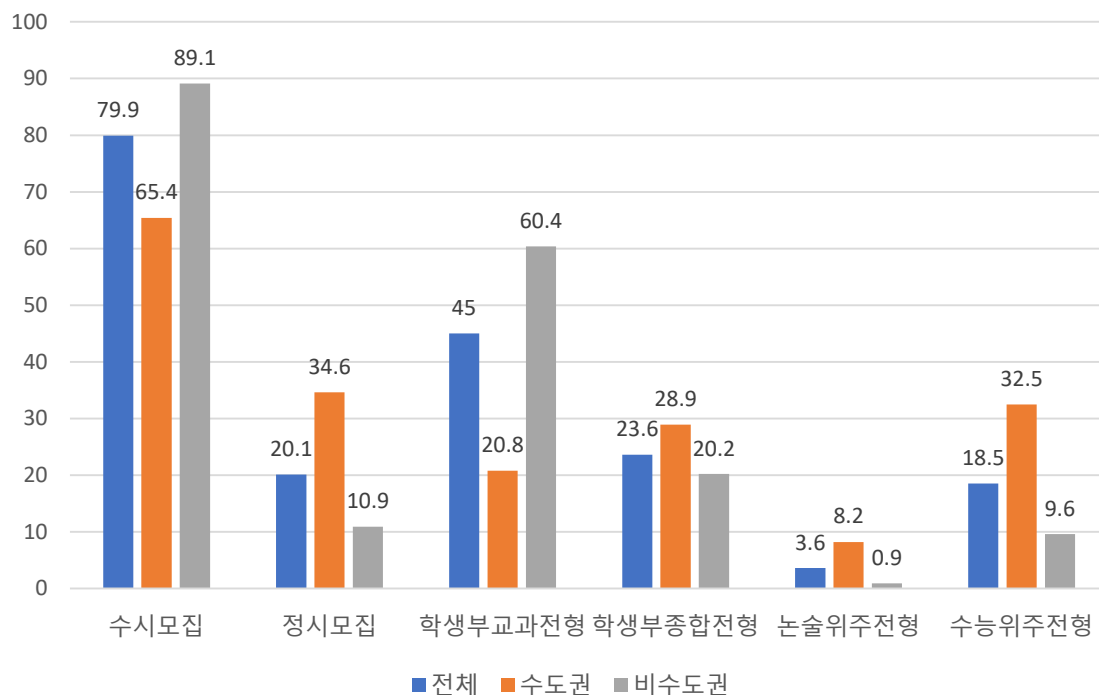


# 2028 전형유형별 적정 모집인원

## 2026현황

- 수시 약 80%, 정시 20%  
수시 수도권 65.4%, 비수도권 89.1% (20%p 이상)  
정시 수도권 34.6%, 비수도권 10.9% (수시 집중)
- 교과 45%, 종합 24%, 논술 4%, 수능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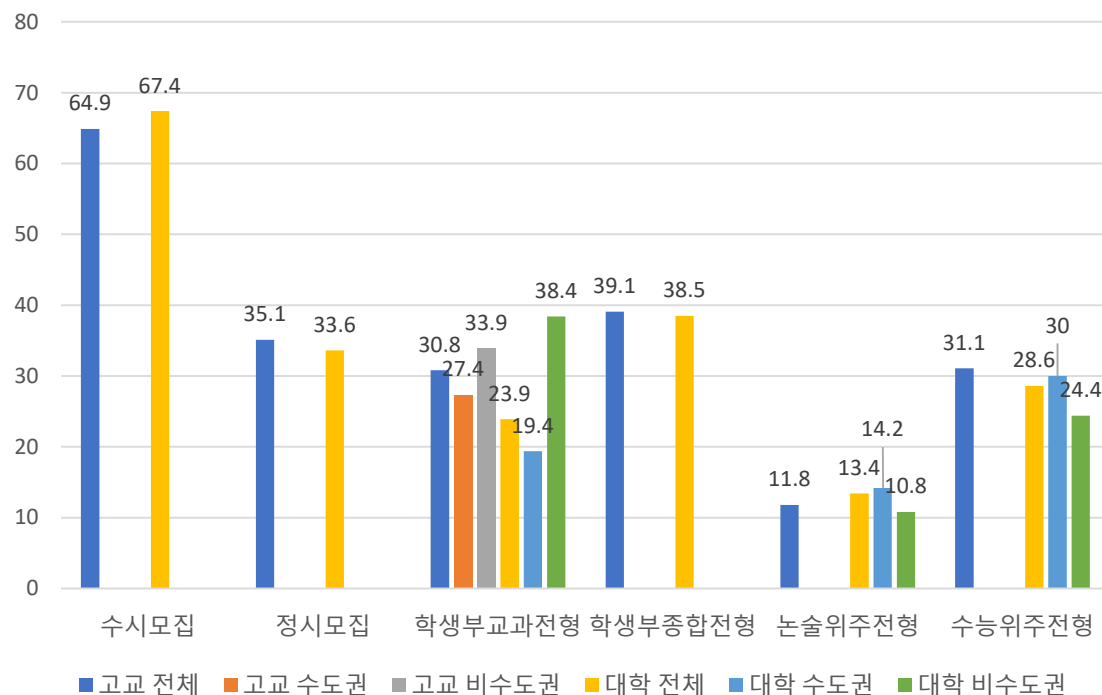
2026학년도 모집인원 현황



## 2028 적정 규모

- 수시 약 65% 내외, 정시 35% 내외  
교과전형 고교 30%, 대학 24%(대학 수도권 19%, 비수도권 38%)  
종합전형 고교 39%, 대학 39%
- 논술전형 고교 12%, 대학 13%(대학 수도권 14%, 비수도권 10%)  
수능전형 고교 31%, 대학 29%(대학 수도권 30%, 비수도권 24%)

2028학년도 모집인원 적정 규모(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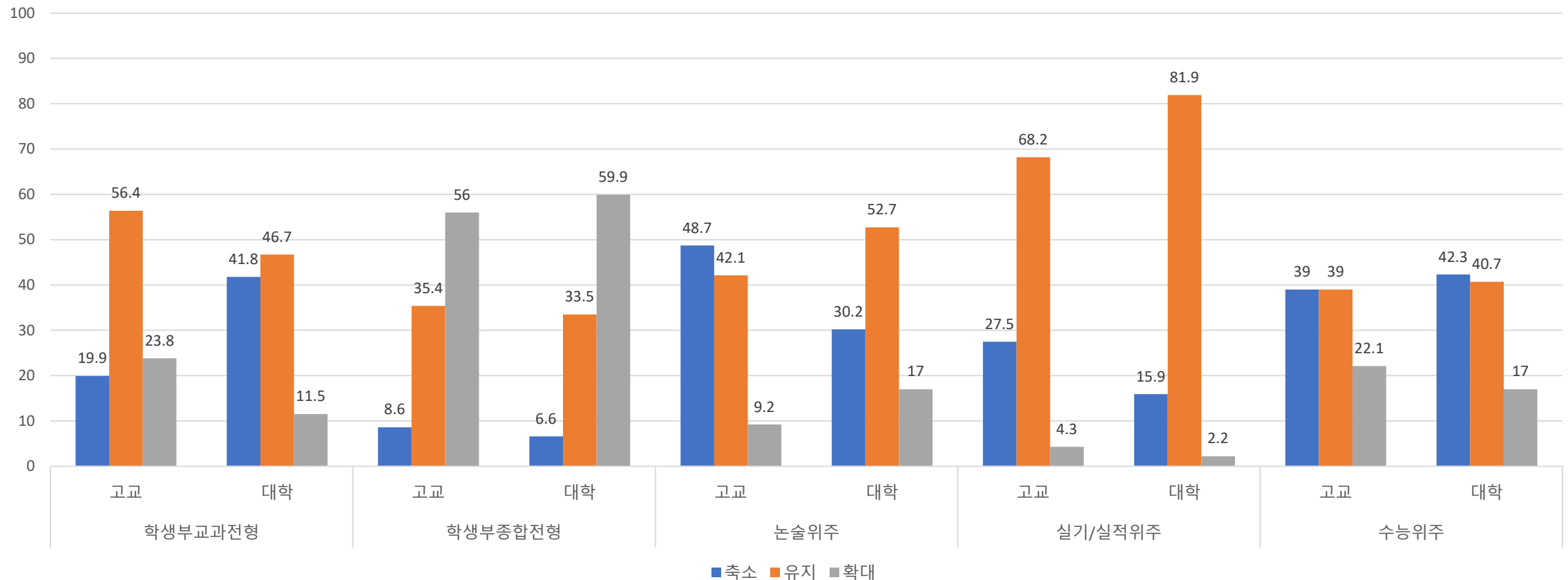
# 2028 전형유형별 적정 모집인원

## 2028 적정 규모

○ 학생부종합 확대, 수능/논술 축소 또는 유지, 학생부 교과와 실기/실적위주는 유지

교과전형 축소: 교사보다 입학사정관 20p 높음, 논술 축소: 입학사정관보다 교사 19p 높음, 수능 축소(유지): 고교와 대학 모두 높음

모집인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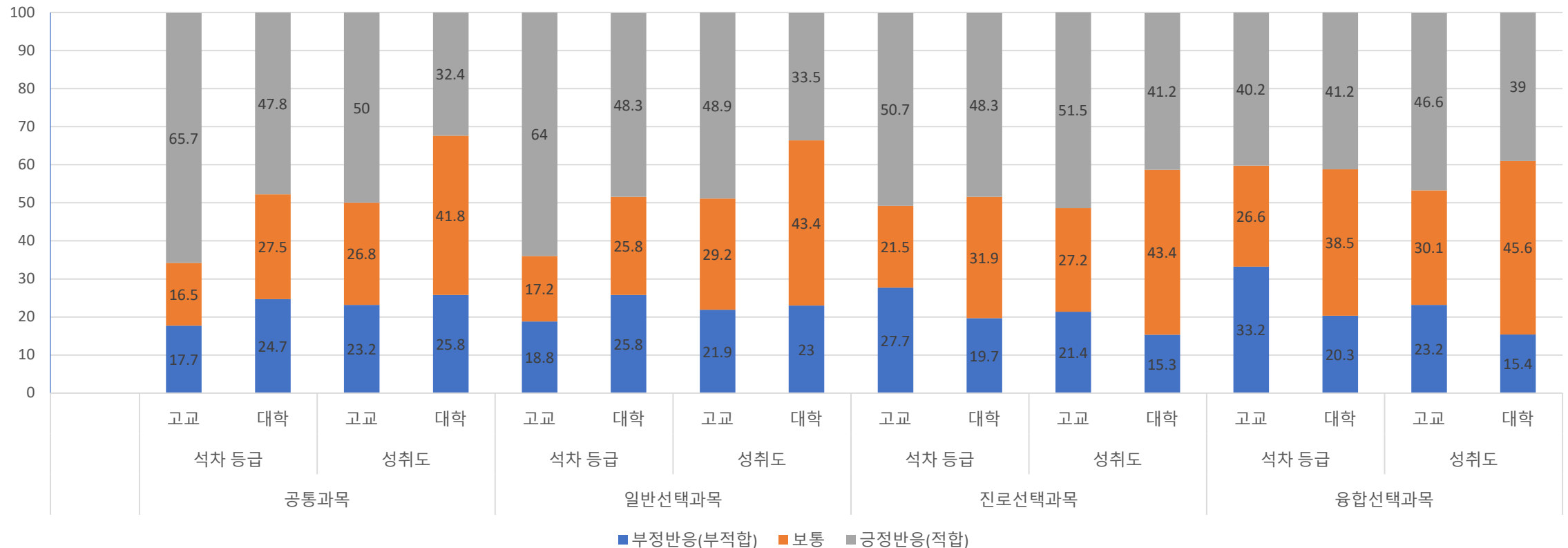
# 변화된 내신 및 수능 체계에서의 변별력 확보

##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 모든 항목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인식 차이 있음

- 교사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에 대한 **긍정반응**이 60% 초과한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긍정반응이 높으나 모두 50%에 미치지 못함
- 융합선택과목의 긍정반응은 교사의 경우 석차등급보다 성취도 높게 나타남

교과성적 정량화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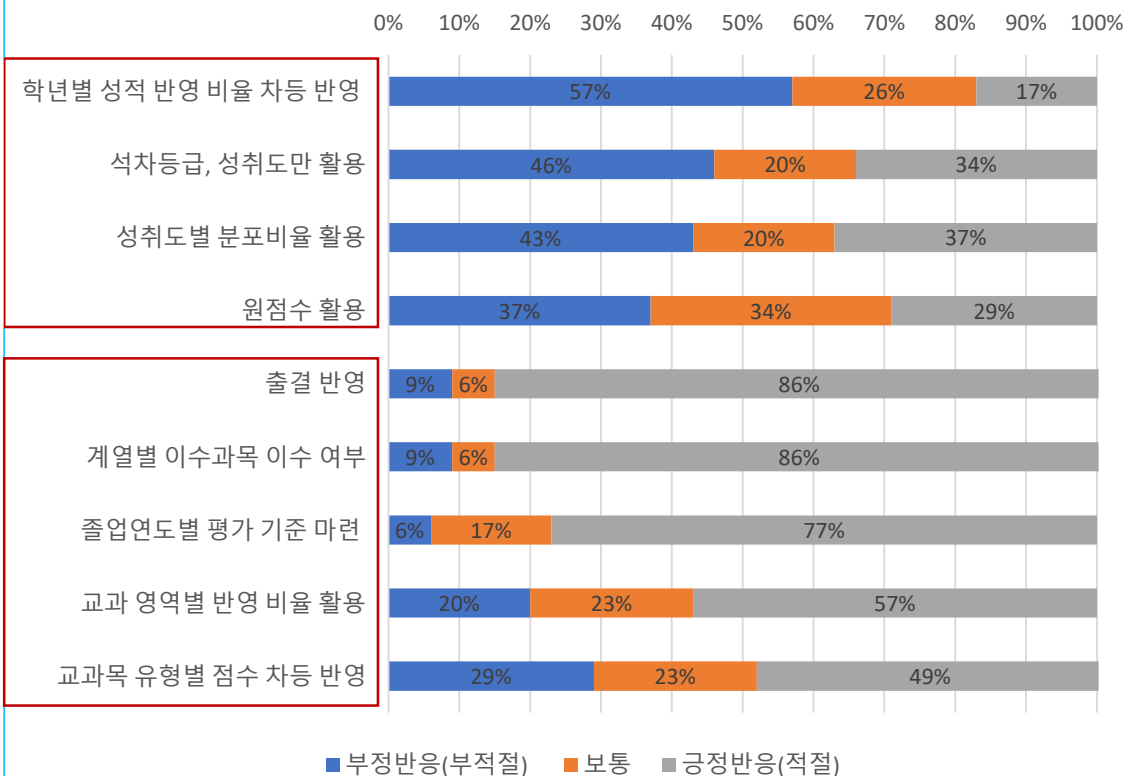
# 변화된 내신 및 수능 체계에서의 변별력 확보

##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성적 정량평가 반영 적절성

○ 내신체계 개편하에서 교과 정량평가에 대한 긍정반응

- 출결>계열별 이수과목 이수 여부> 졸업연도별 평가기준 마련>  
교과 영역별 반영 비율 활용> 교과목 유형별 점수 차등 반영 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교과 정량평가 반영 적절성(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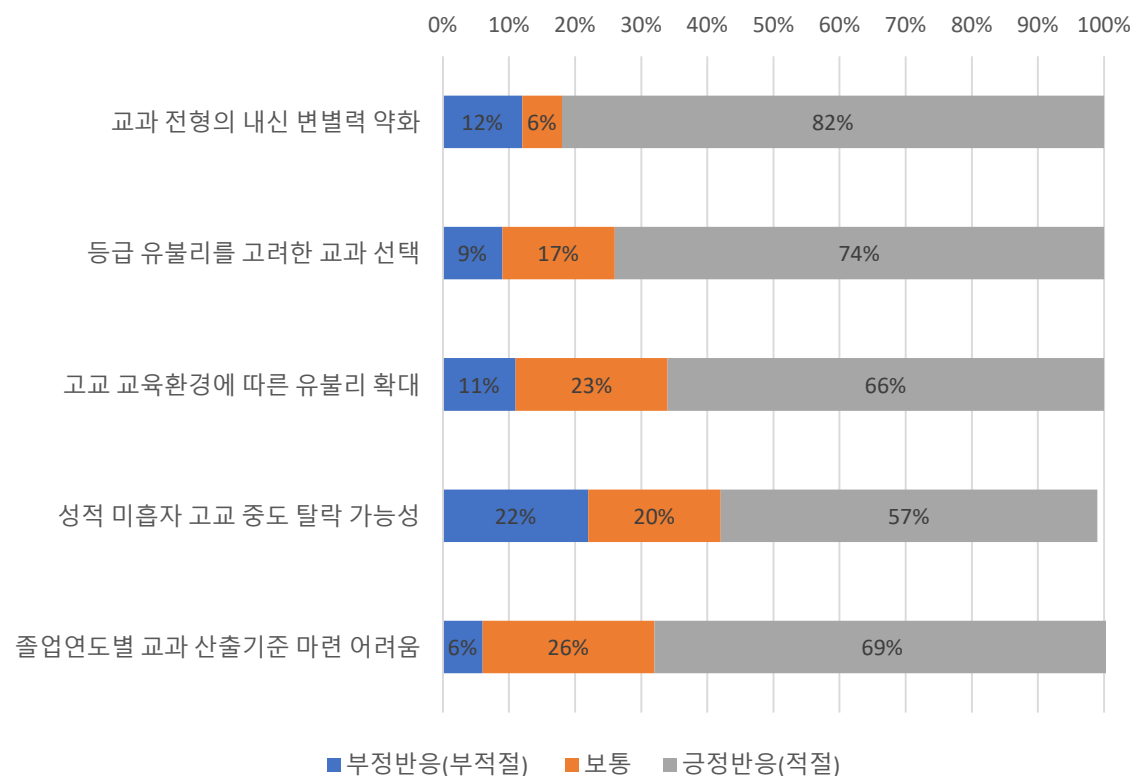


## 교과전형 운영의 예상 어려움

○ 내신체계 개편하에서 교과전형 운영의 어려움 예상 긍정반응

- 내신 변별력 약화>등급 유불리를 고려한 교과 선택(융합 선택 낮음)>  
졸업연도별 교과 산출기준 마련 어려움> 고교교육환경에 따른 유불리 확대> 성적 미흡자 고교 중도 탈락 가능성 순

내신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 교과전형 운영 어려움(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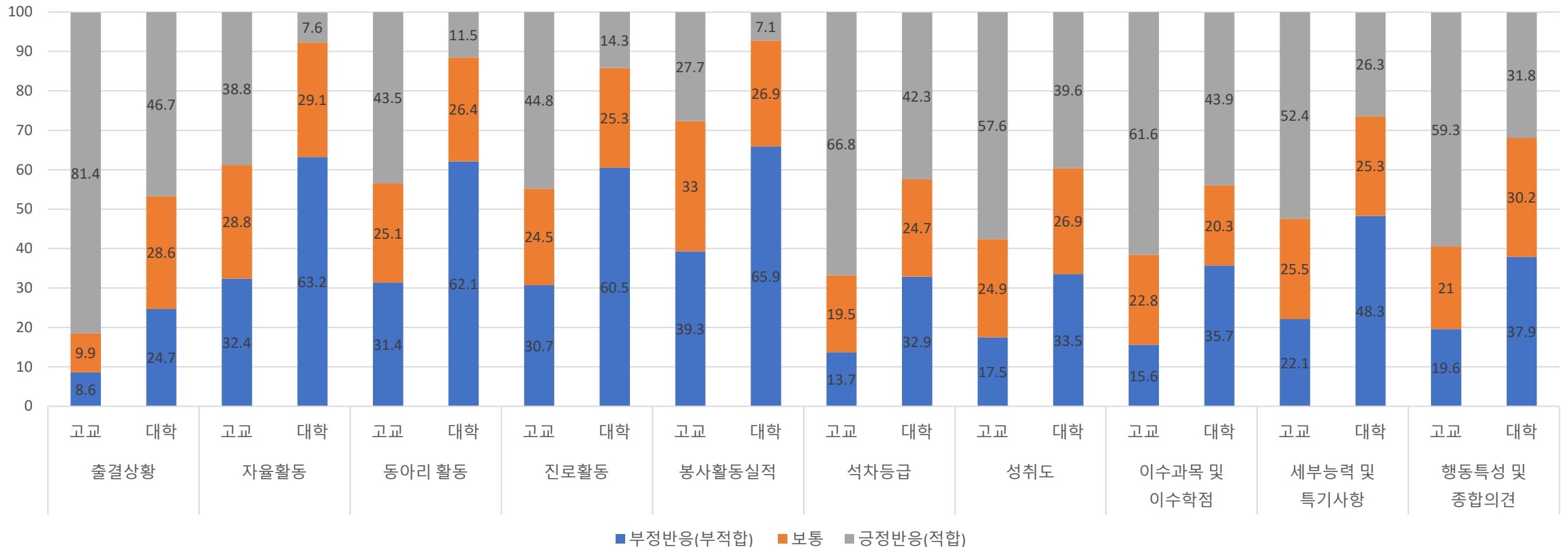


# 변화된 내신 및 수능 체계에서의 변별력 확보

## 수능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추가 활용 적합도

- 모든 항목 교사와 입학사정관 인식 차이 큼. 교사는 수능 외 학생부 항목 활용 긍정반응 50% 초과, 입학사정관은 긍정반응 높으나 50% 미만
  - 교사: 긍정반응이 출결(81%)>석차등급,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은 높고, 창체는 상대적으로 낮음
  - 입학사정관: 긍정반응이 출결(47%)>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석차등급> 성취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순, 창체는 부정반응 60% 이상 높음

수능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활용 적합도(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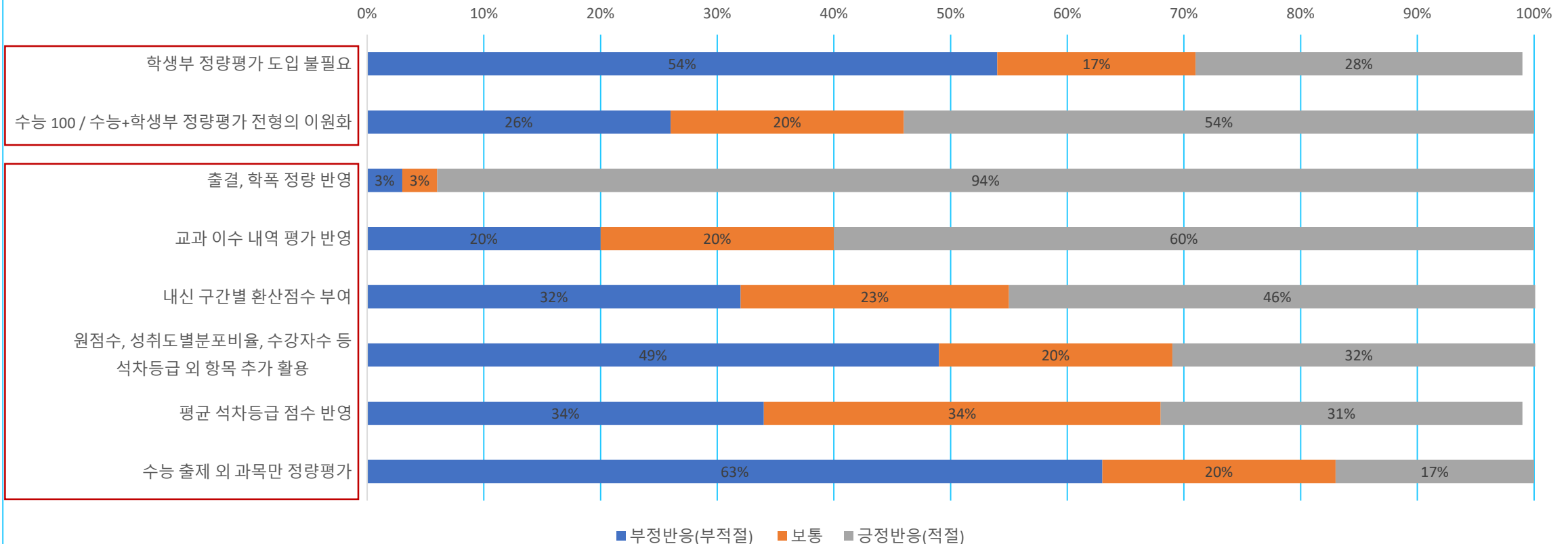


# 변화된 내신 및 수능 체계에서의 변별력 확보

## 수능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반영 적절성(델파이조사)

- 수능전형에 학생부 정량평가 추가 도입에 긍정반응이 높았고, 모집단위별 정시군별 반영을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 긍정반응이 높았음
- 출결/학폭 정량 반영(94%) > 교과 이수 내역 평가 반영 > 내신 구간별 환산점수 부여 > 석차등급 외 항목 추가 활용 > 평균 석차등급점수 반영 > 수능 제외 과목만 정량평가 순 : 학생부 정량평가 반영 시 최소한으로 반영 선호(학생부 정량 최소화 반영)

수능전형에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반영(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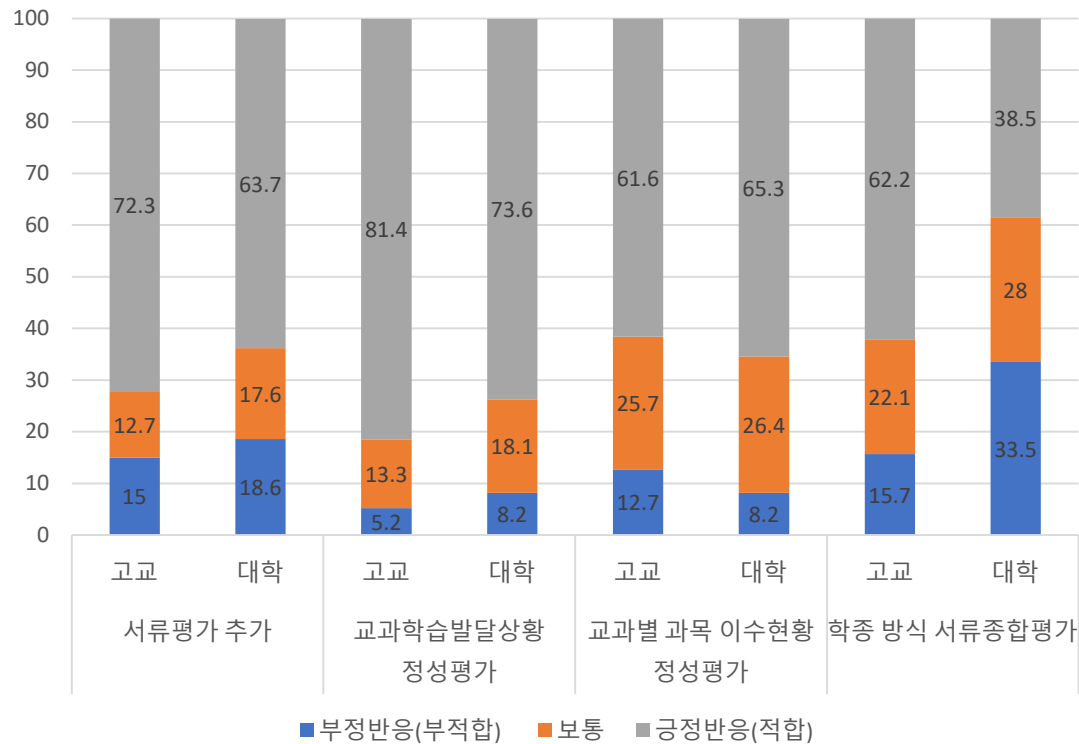


# 학생부 교과 및 수능전형 서류/면접 정성평가 추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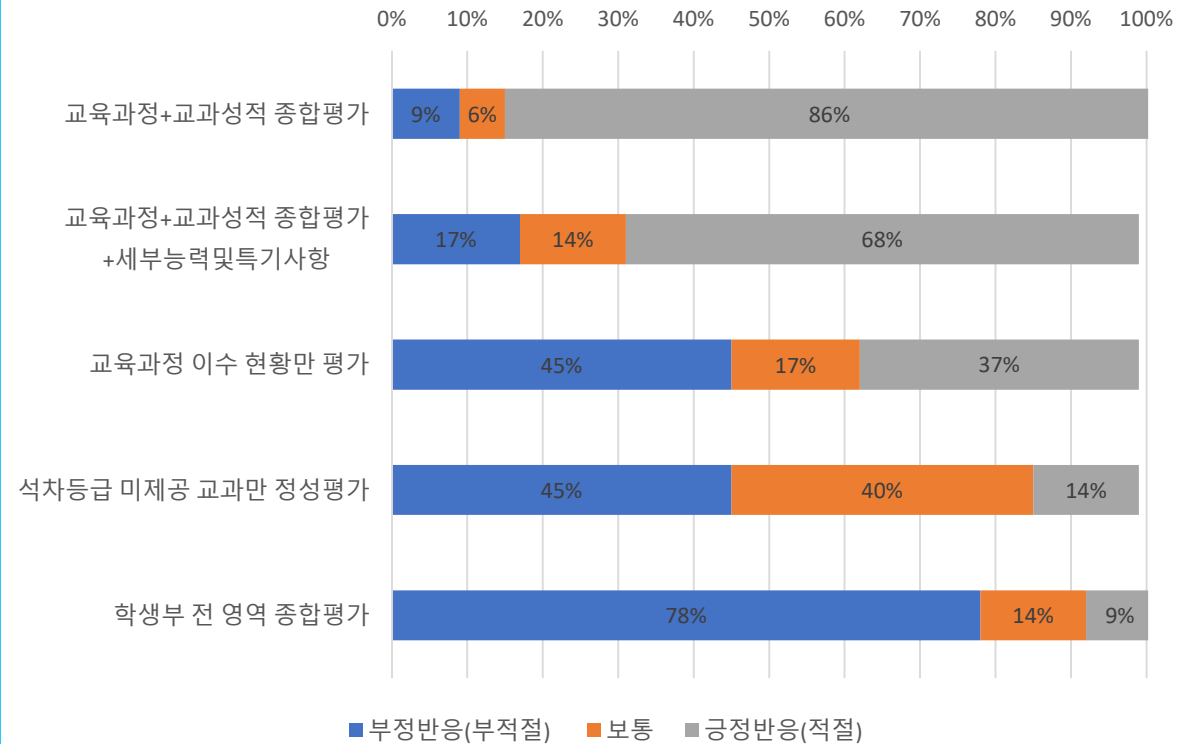
## 교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반영

-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서류 정성평가 반영에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높게 나타남
  - 서류 정성평가 방식 : 교과학습발달상황 정성평가가 가장 높고, 교과별 과목 이수현황 정성평가>학종 방식 서류종합평가 순
  - 종합방식 서류종합평가에 대해서 고교는 높으나(62%), 대학은 낮음(39%)
- 델파이조사에서도, 교육과정과 교과성적 종합평가가 가장 높고, 교과학습발달상황 전체> 교육과정 이수 현황만> 석차등급 미제공 교과만> 학생부 전 영역 (학종 방식) 종합평가 순으로 나타남. 학종 방식 서류평가의 부정반응이 매우 높았음(78%)

학생부교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반영(설문조사)



학생부교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시 방식(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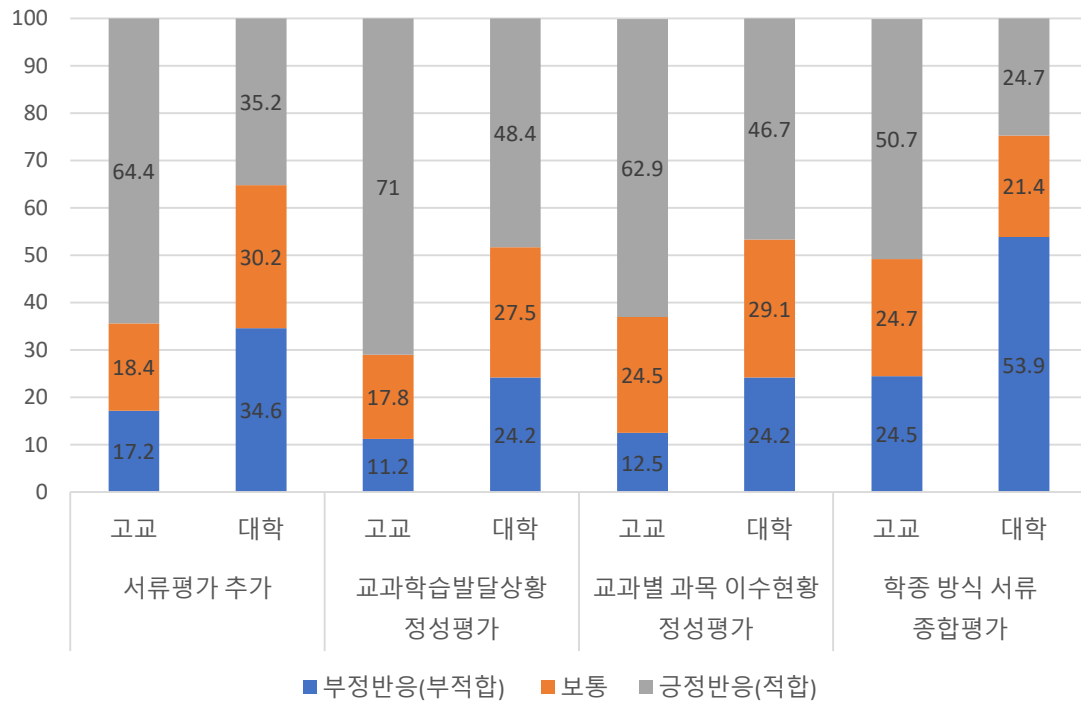


# 학생부 교과 및 수능전형 서류/면접 정성평가 추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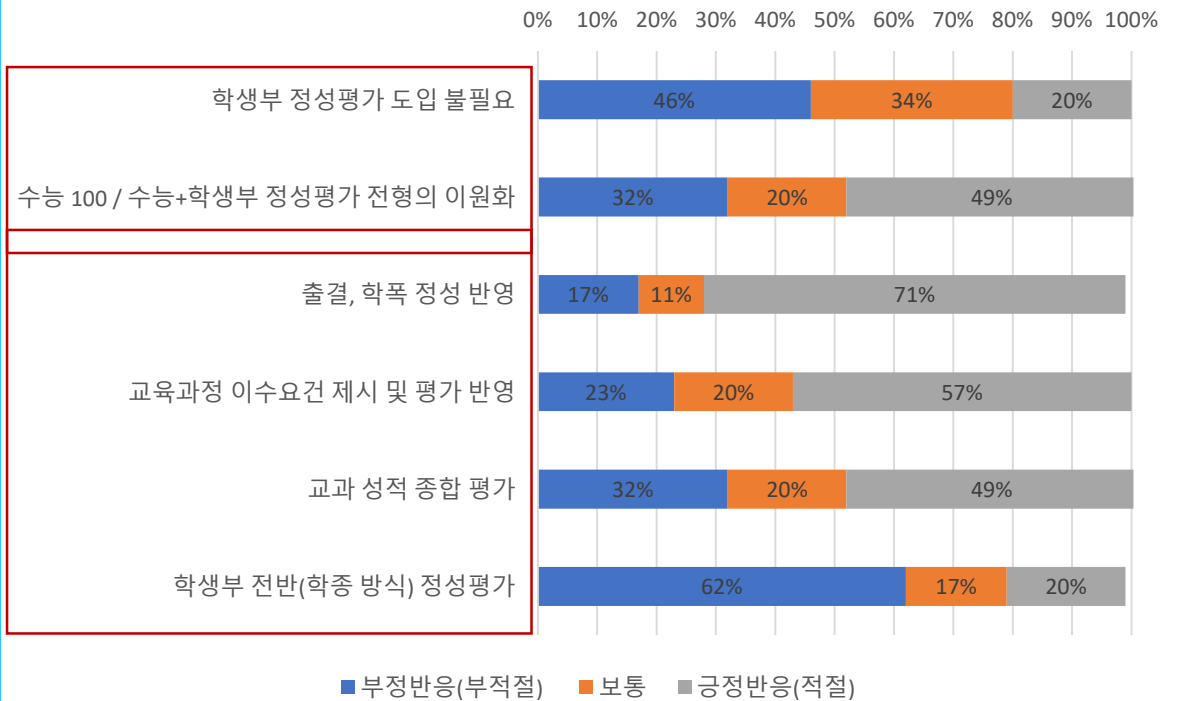
## 수능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반영

- 설문조사 결과, 교사는 긍정반응이 50% 이상 높으나, 입학사정관은 50% 미만으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수준
  - 서류 정성평가 방식 : 교과학습발달상황 정성평가가 가장 높고, 교과별 과목 이수현황 정성평가>학종 방식 서류종합평가 순
  - 종합방식 서류종합평가에 대해서 긍정반응이 고교는 높으나(51%), 대학은 낮음(25%). 부정반응이 54%로 높음
- 델파이조사에서도 수능전형에 학생부 정성평가 추가 도입에 긍정반응이 높았고, 모집단위별 정시군별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 긍정반응이 높았음
  - 출결/학폭 정량 반영(94%) > 교과 이수 내역 평가 반영 > 내신 구간별 환산점수 부여 > 석차등급 외 항목 추가 활용 > 평균 석차등급점수 반영 > 수능 제외 과목만 정량평가 순 : 학생부 정량평가 반영 시 최소한으로 반영 선호(학생부 정량 최소화 반영)

수능위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반영(설문조사)



수능위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시 방식(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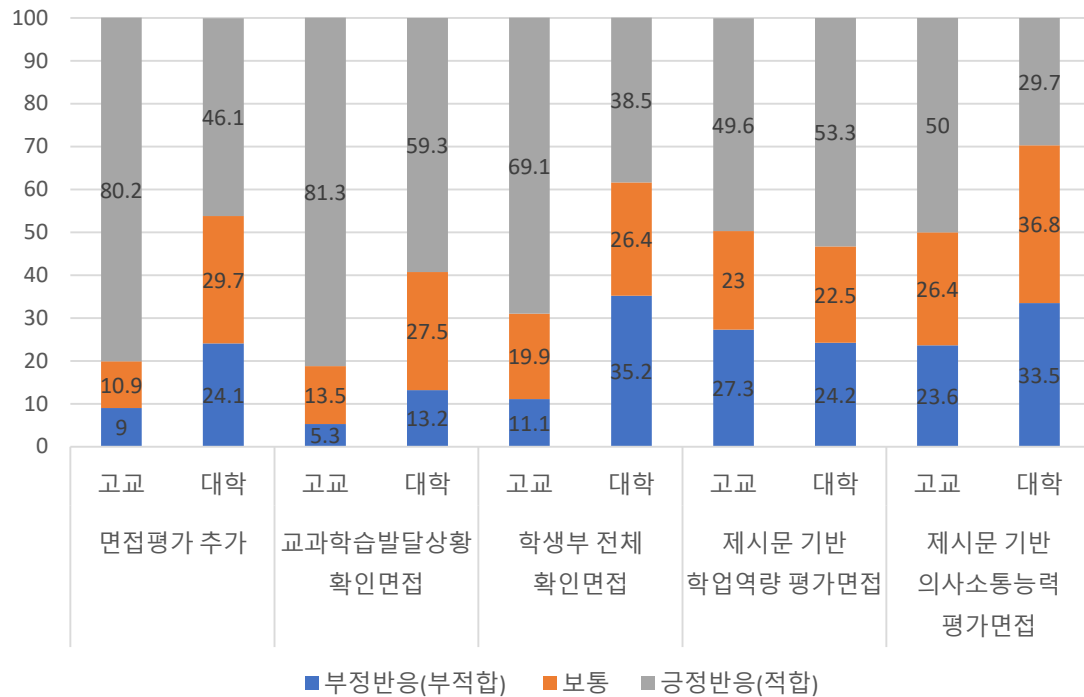


# 학생부 교과 및 수능전형 서류/면접 정성평가 추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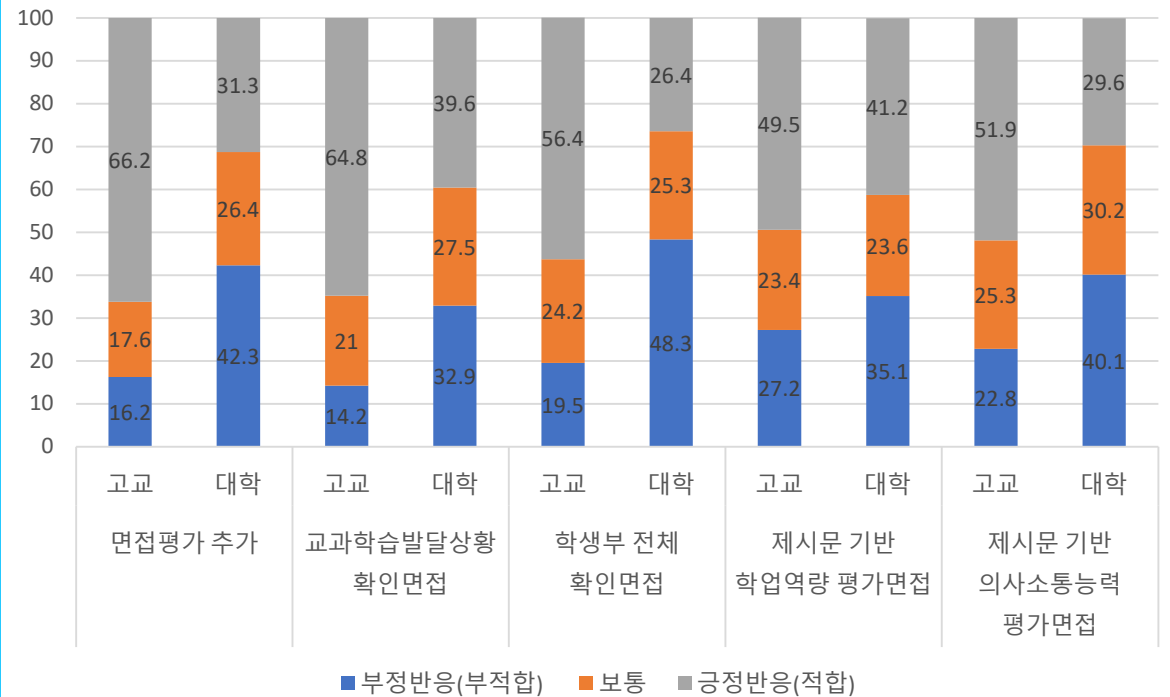
## 교과/수능전형에 면접평가 추가 반영

- 교과전형 면접평가 추가 반영, 교사는 긍정반응이 80% 이상 높으나, 입학사정관은 46%로 긍정반응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낮음
  - 면접평가 방식 : 교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확인면접과 학생부 전체 확인면접이 높고, 입학사정관은 교과학습발달상황 확인면접과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이 높음, 반면에 교사는 제시문 기반의 학업역량이나 의사소통능력면접이 낮고, 입학사정관은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및 학생부 전체 확인면접이 낮음[학생에게 기회의 장, 고교의 기록 확인, 대학은 투입에 비해 충원을 낮아 효율성 낮고 행정 운영 부담]
- 수능전형 면접평가 추가 반영, 교사는 긍정반응이 66% 이상 높으나, 입학사정관은 긍정반응 31%보다 부정반응 42%로 높음
  - 면접평가 방식은 교과전형과 동일함(교사는 학생부 확인면접, 입학사정관은 학업역량 면접 선호)

학생부교과전형에 면접평가 추가 반영(설문조사)



수능위주전형에 면접평가 추가 반영(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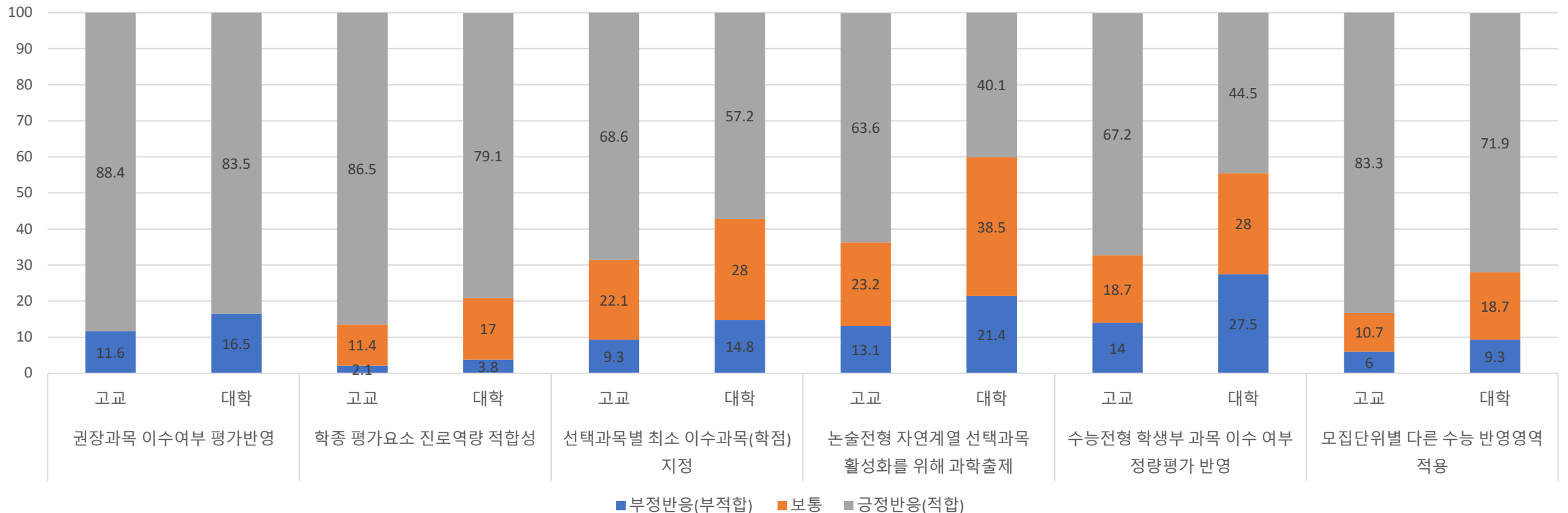


#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

##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목 대입전형 반영

-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을 평가에 활용하는데 대해서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대체로 긍정반응을 보임
  - 권장과목 평가반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학종 진로역량 평가 적합성, 모집단위별 다른 수능 반영영역 적용, 선택과목별 최소 이수과목(학점) 지정 등에 모집단위별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입학사정관은 논술전형 자연계열 선택과목 활성화를 위해 과학 출제와 수능전형 학생부 과목 이수 여부 정량평가 반영의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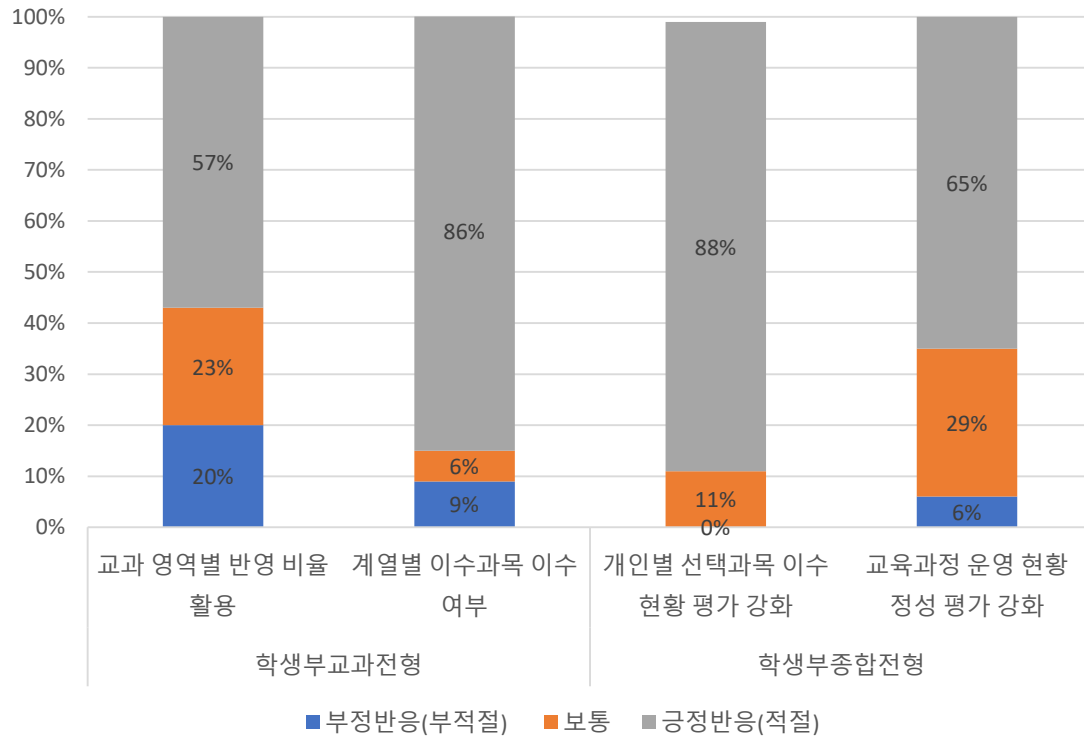


#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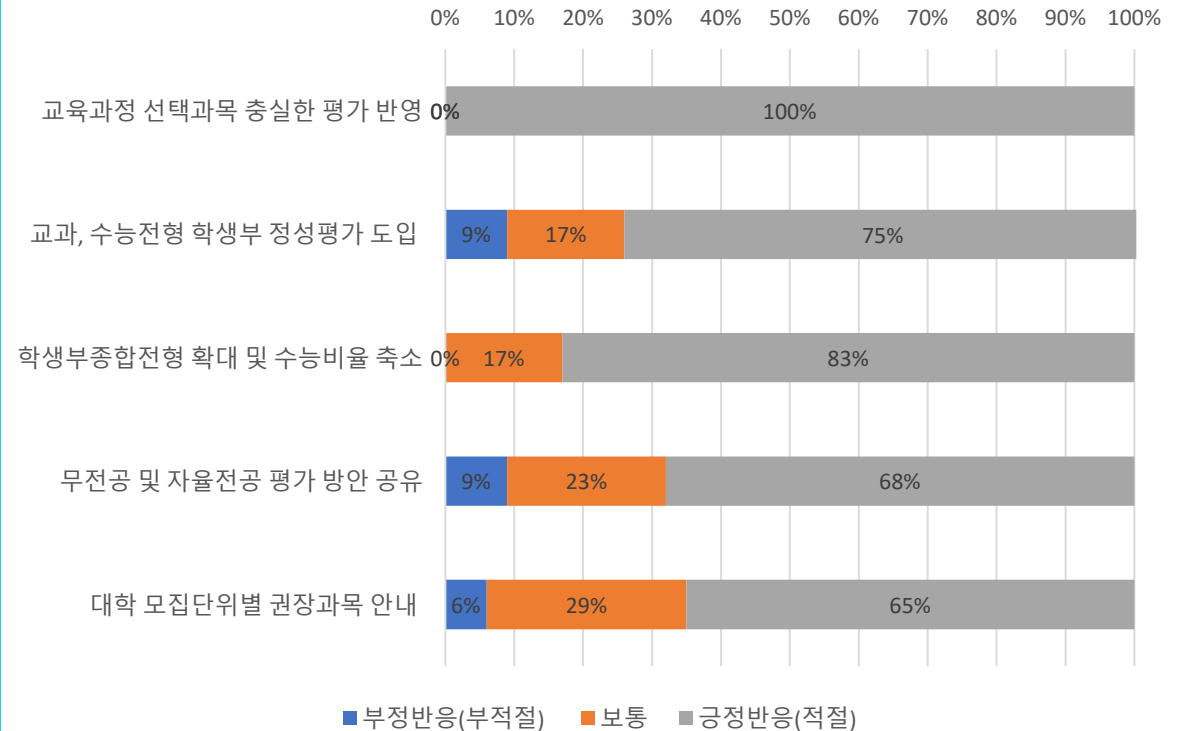
##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목 대입전형 반영

- 교과전형에서 계열별 이수과목 이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데 긍정반응이 86%로 높고, 교과영역별 반영 비율 활용에 대해서 57%로 높음
- 종합전형에서 개인별 선택과목 이수 현황 평가에 대한 긍정반응이 88%로 높고,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정성평가 강화에 대해서 65%로 높음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교육과정 선택과목의 충실한 평가 반영이 100%로 가장 높고,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및 수능비율 축소 > 교과/수능전형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 > 무전공 및 자율전공 평가 방안 공유 > 대학 모집단위별 권장과목 안내 순으로 나타남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교과 이수과목 평가 활용(델파이조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바람직한 대입전형 방향(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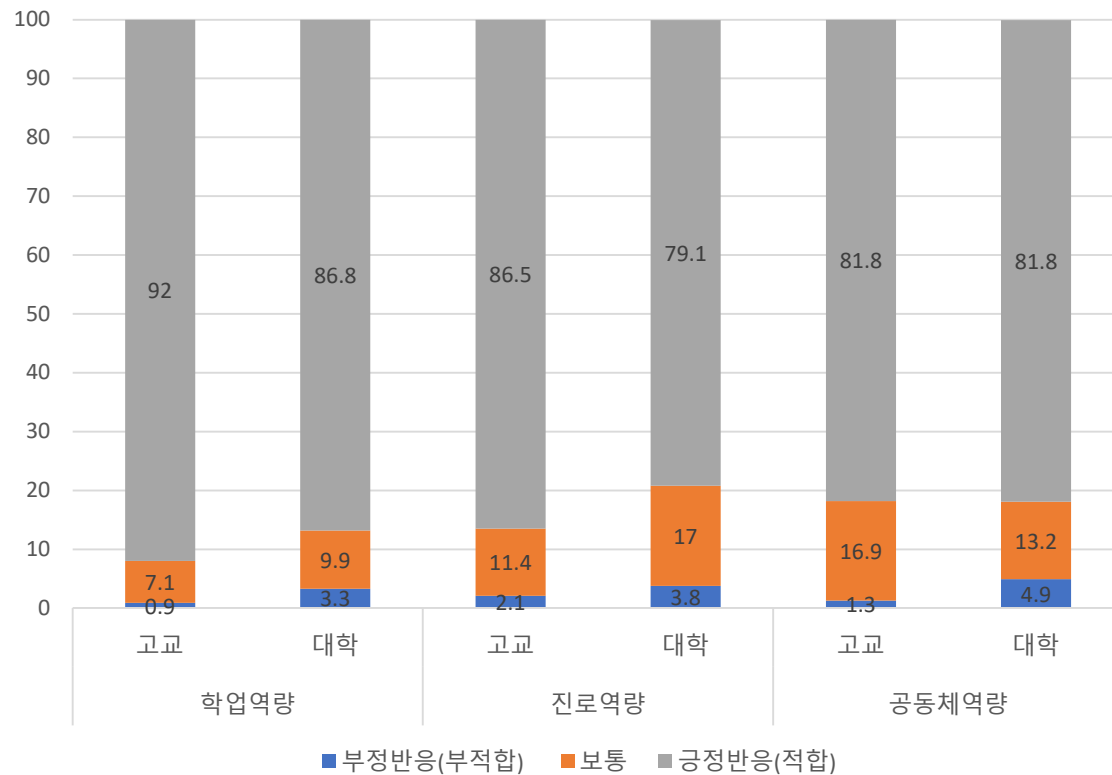


## ●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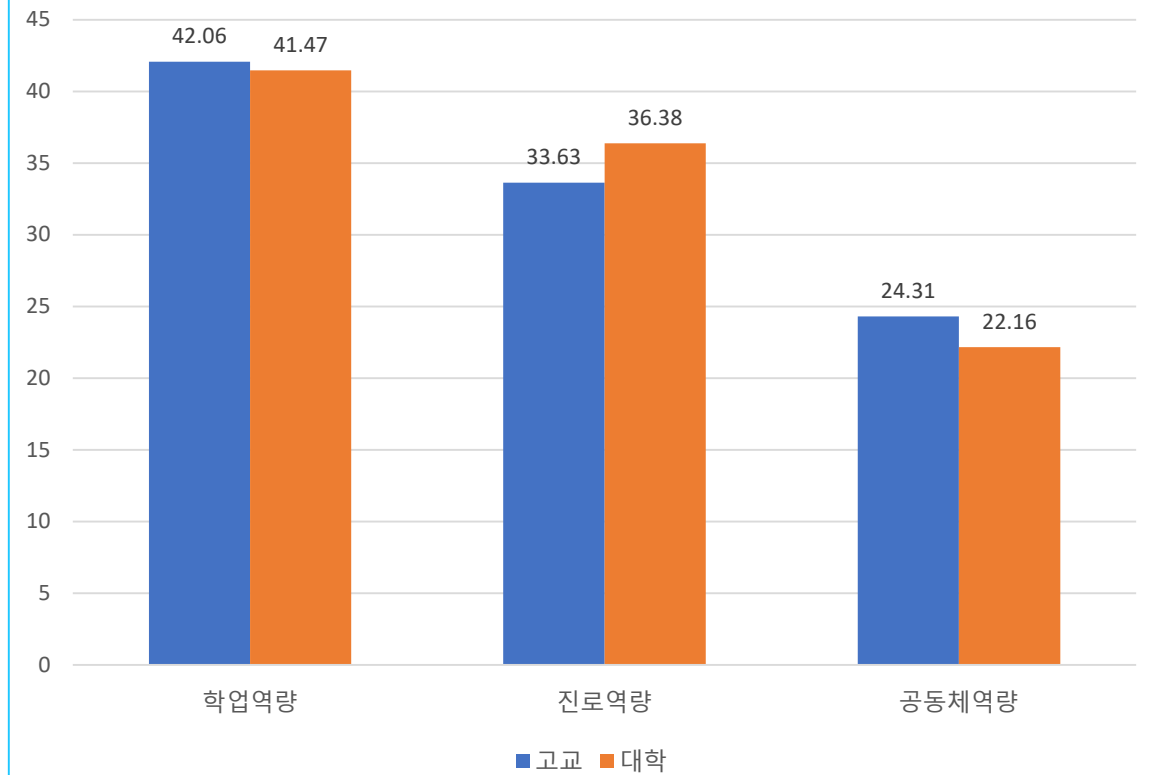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적합성 및 비율

-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모두 80% 이상으로 높은 긍정반응을 보임.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하는 진로역량도 고교 86%와 입학사정관 79%로 높음
- 적정 반영 비율로 학업역량 40% 초과, 진로역량 35% 수준, 공동체역량 20% 초과로 인식함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적합성(설문조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적정 비중(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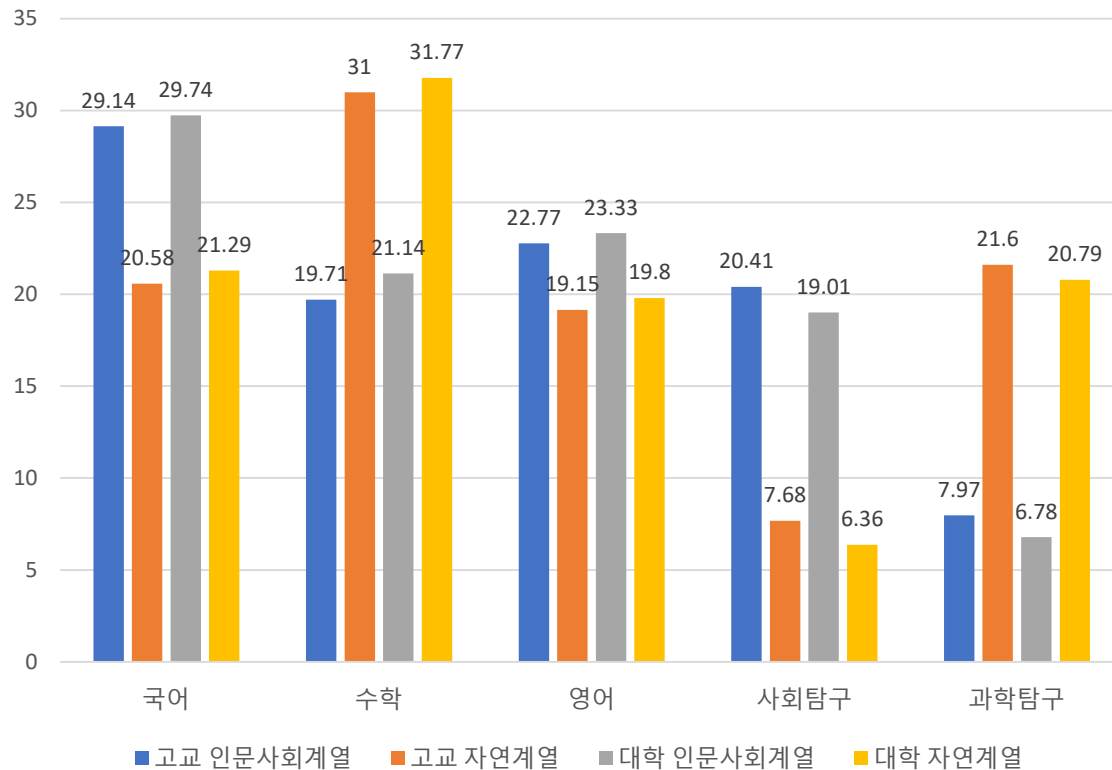


#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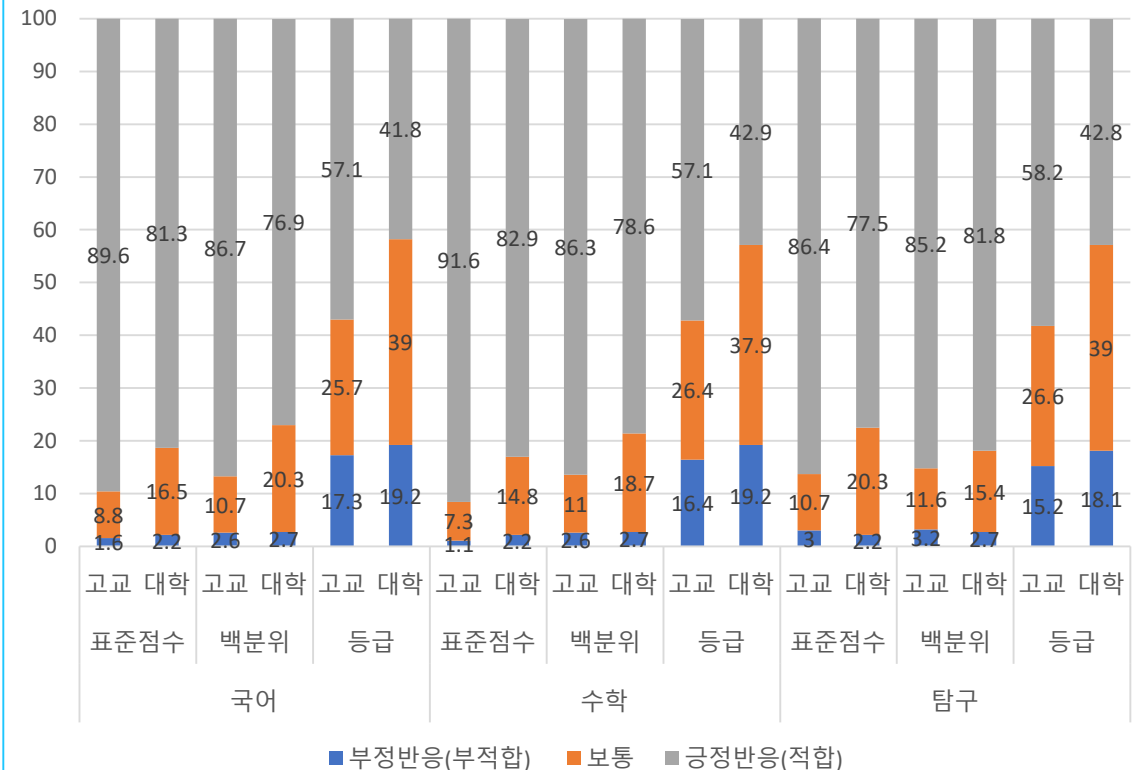
## 수능전형 모집단위별 적정 반영비율 및 수능성적지표 적합도

- 인문계열은 국어 약 30% 수학 20%, 사탐 20%, 과탐 7% 자연계열은 수학 약 30%, 국어 20%, 과탐 20% 사탐 7% 영어는 공통 20% 내외
- 국어 수학 탐구 모두 표준점수와 백분위 모두 긍정반응이 높음, 등급은 낮음. 표준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백분위임. 입학사정관은 탐구는 표준점수보다 백분위가 긍정반응이 높음

모집단위별 수능영역별 적정 반영비율(설문조사)



수능 성적지표의 적합도(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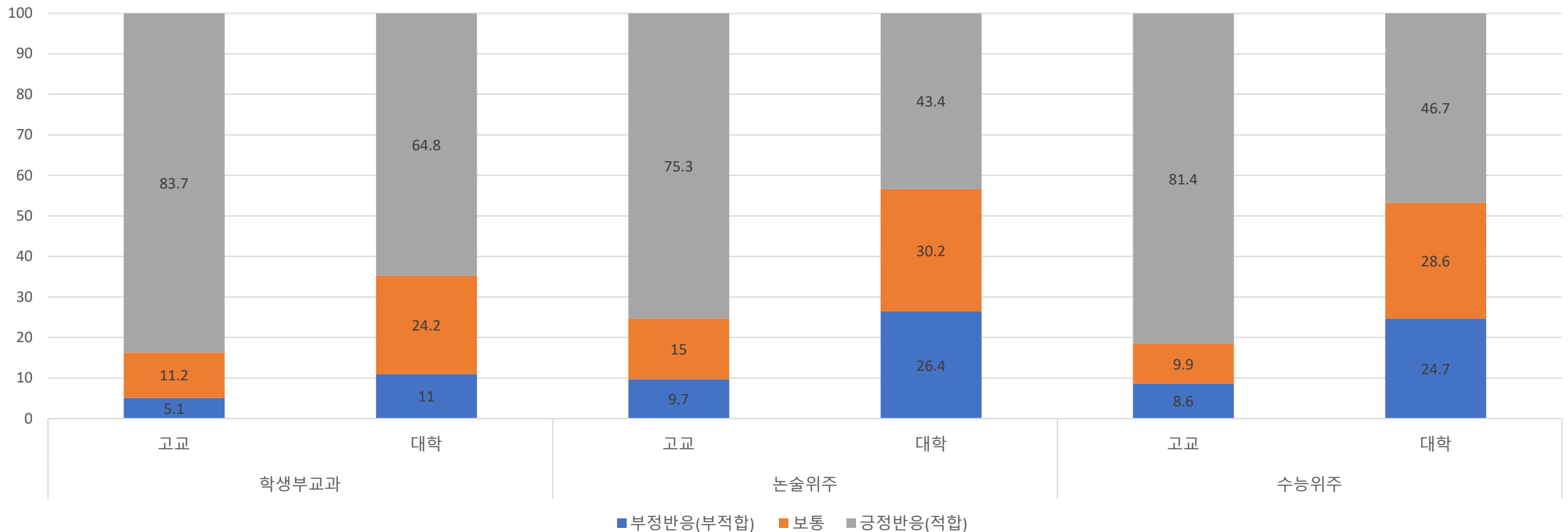


## 출결상황 대입전형 활용

### 출결상황 정량평가 반영

- 교사는 교과전형, 수능전형, 논술전형 모두 긍정반응이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입학사정관은 학생부를 활용한 교과전형은 65%로 긍정반응이 높으나, 논술전형과 수능전형은 긍정반응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낮음
- 학교폭력기재상황처럼 출결상황 반영 점수표 활용, 미인정(결석/지각/조퇴/결과) 감점, 개근 가점 활용 등

출결상황 정량평가 반영(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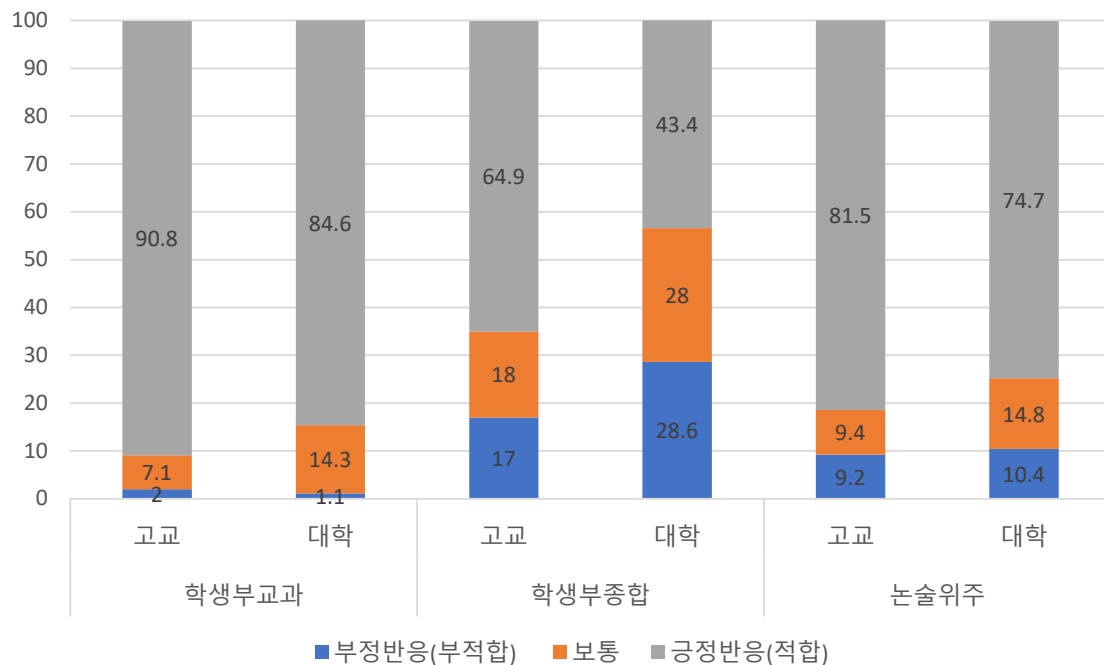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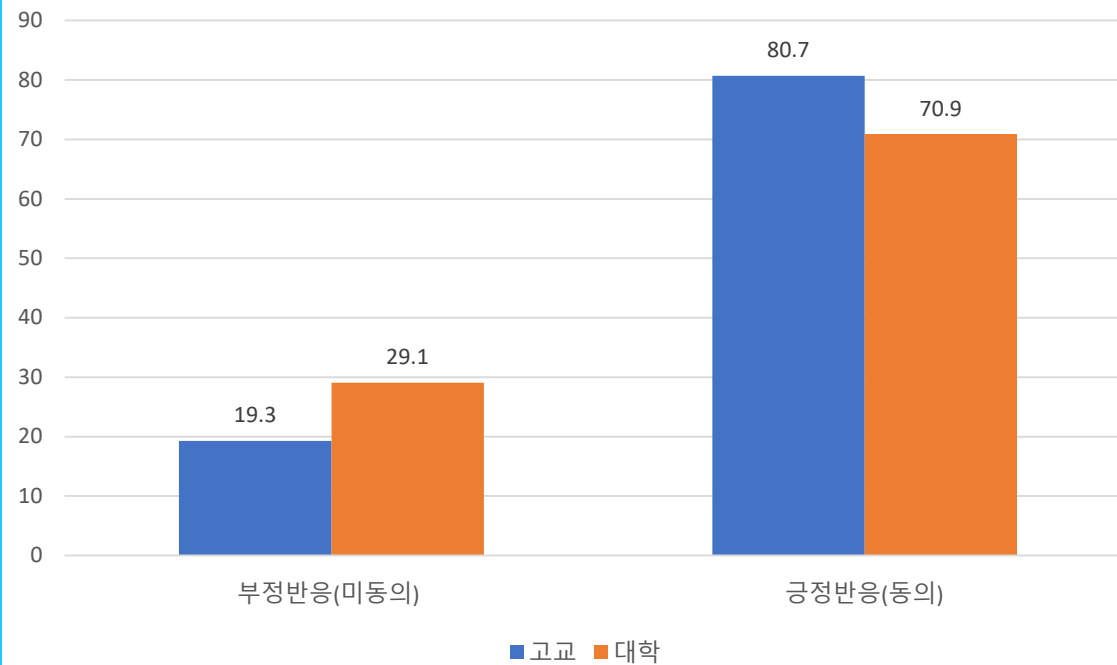
## 수능최저학력기준 대입전형 활용

-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에 대해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긍정반응이 높게 나타남
- 수능 최저에 학생부교과전형 긍정반응이 85% 이상, 논술전형 75% 이상,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사 65%, 43%로 높음(상향 70% 이상이 동의)
  - 수능최저 상향이 필요한 이유: '평가요소 축소 인한 변별력 감소(교사 43%, 입학사정관 4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학력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교사 37%, 입학사정관 41%)', '학교별 내신의 차이로 인해 수능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과,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학업역량 증진을 위해서'
  - 수능 최저 동의하지 않는 이유: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교사 38%, 입학사정관 2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생부 평가 등 다른 요소만으로도 학생 선발 가능(교사 19%, 입학사정관 28%)', '변화된 수능이 학업역량을 평가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적절하지 않다(교사 19%, 입학사정관 18%)'과, '학생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교사 12%, 입학사정관 26%)', '사교육이 증가되어 공교육 내실화가 저해(1%)'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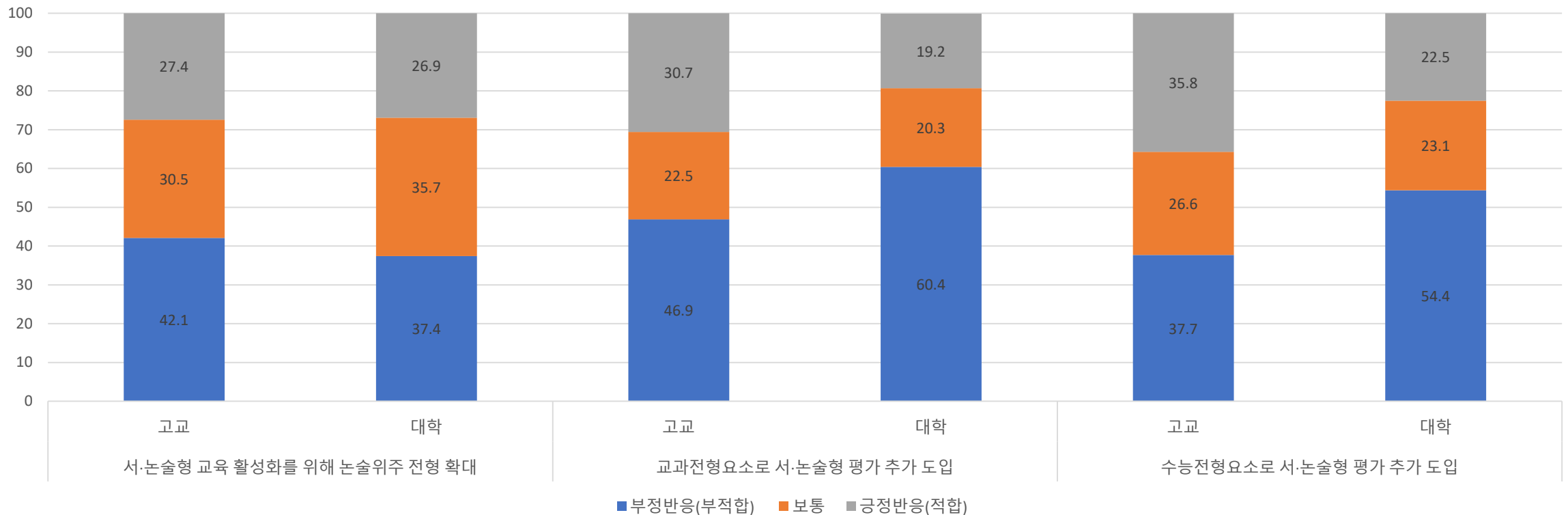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상향 반영(설문조사)



##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대비한 서·논술형 평가 대입전형 추가 활용

-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입전형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반응 보다 부정반응이 약 2배 높음  
고교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어려움이 있어, 수행평가를 일정 부분 활용하는 수준임. 서·논술형 평가를 제시문 기반 면접 등의 형태로 활용 가능
- 서·논술형 수능 도입에 대해서도 대학과 고교 모두 부정반응이 높음. 2032학년도 국교위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 참조 필요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대비한 서·논술형 대입 평가 추가 활용(설문조사)





# 03 결론 및 정책제언

전형자료와 입시체계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수능과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입시 수요와 모집인원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 • 전형자료와 입시체계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I)

### 결론

- 전형자료는 간소화, 입시체계는 수시와 정시의 다양화로 불일치 문제 발생
- 현재 수시 정시모집의 입시체계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실적, 수능의 기회 다양화 지향
- 한편, 2028 대입제도 개편은 내신 5등급과 통합형 수능 도입, 학생부 전형자료의 간소화로 개별 평가요소의 대입 변별력 약화  
→ 전형자료 병행 활용 필요성 대두

- 학생부 교과전형: (기존) 교과성적 + 수능최저 → (변경) 교과성적 + **출결 및 교과종합평가** + 수능최저
- 학생부 종합전형: (기존) 서류평가+ 면접평가 → (변경)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수능최저**
- 논술전형: (기존) 논술+ 수능최저 → (변경) 논술 + **출결 및 교과성적** + 수능최저
- 수능전형: (기존) 수능 → (변경) 수능 + **(1안) 학생부 출결 및 교과성적**

(2안) 학생부 출결 및 권장교과 이수과목(학점)가산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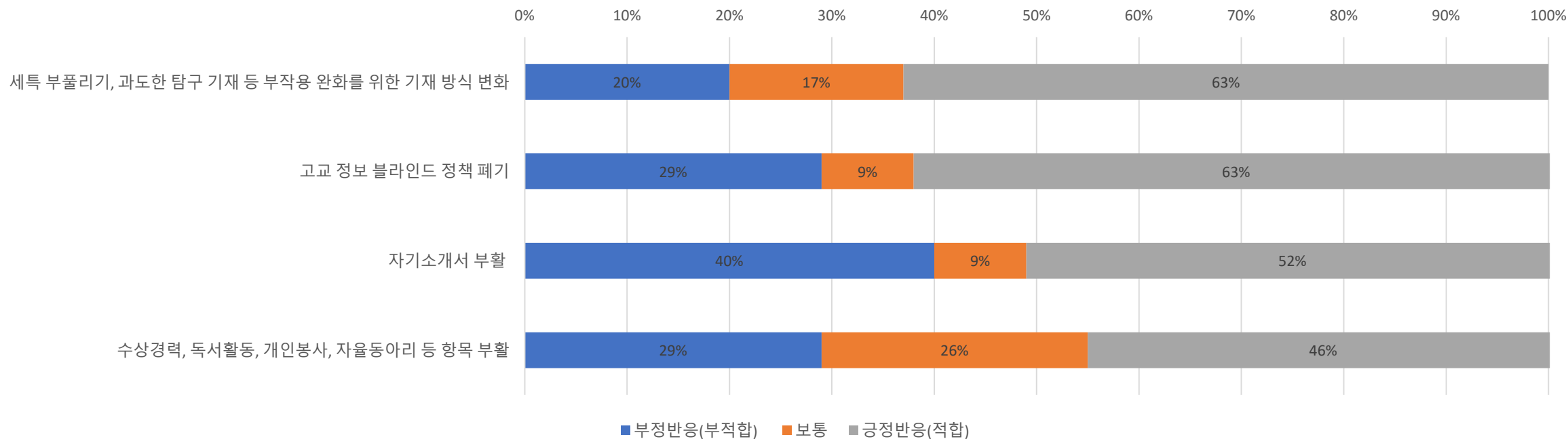
(3안) 학생부 교과종합평가

## 전형자료와 입시체계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I)

### 정책제언

-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대학 자율적 결정(사업 연계 제외)
- 출신 고교 블라인드 평가 폐지: 학생부 실명제로 교육환경 고려 및 기록의 신뢰성 제고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부풀리기, 과도한 탐구 기재, AI 활용(챗 GPT) 세특 기재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학생부 기재 양식 변경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걸림돌 해소 방안(1)(델파이조사)



## 수능과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II)

### 결론

- 2028 통합형 수능은 계열 구분 없는 ‘공통 수능’ 지향,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 선택형 교육과정 지향
- 수능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전부 포괄할 수 없음, 보충적 관점에서 학생부 활용 필요. 특히 자연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수능과목에서 수학(미적분과 기하)과 과학탐구 일부 과목이 제외되어 대학 전공수학을 위한 기초역량 평가 필요
-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입시가 교육을 앞서가는 일 없어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인 학생의 교과 이수 선택과목을 대입 평가 적극 활용
- 수능 외에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추가 활용 필요
- 모집단위별(인문/자연) 모집군별(가/나/다군) 특성을 반영해 수능+학생부, 수능만 선발 자율적 결정

### 정책제언

- 정부: 정시모집 수능 외 평가요소 추가 활용 자율적 결정
- 대학: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대학의 계열별(모집단위별) 권장 이수과목 제시(2025년 상반기), 또는 계열별 교과 권장 이수학점(과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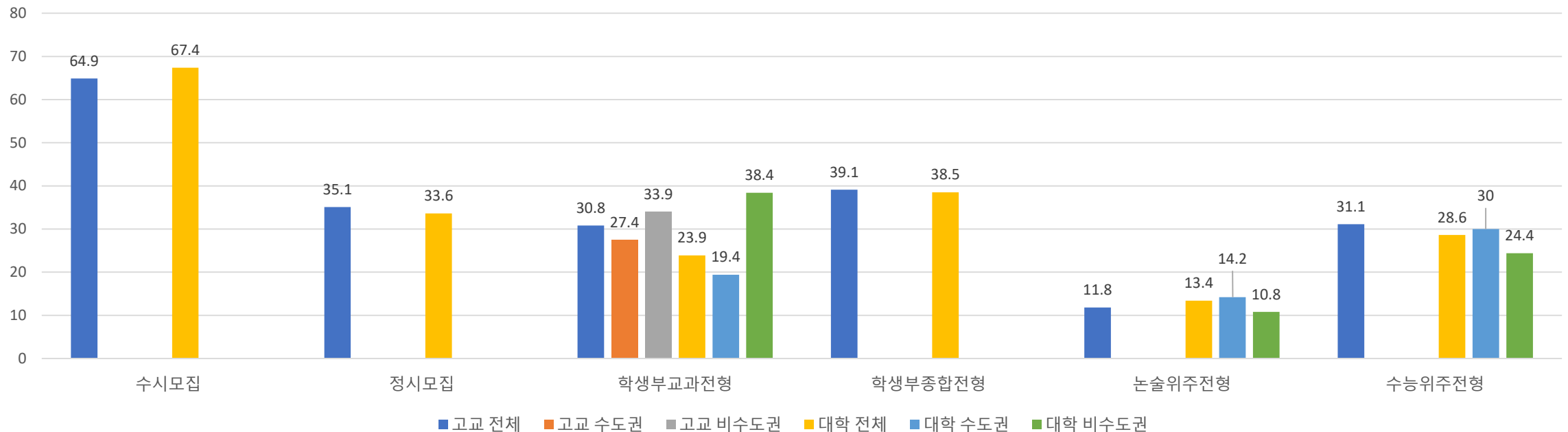


## 입시수요와 모집인원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III)

### 결론

- 수시는 지원자가 많고 정시는 지원자가 적고, 수도권 16개 대학 기준으로 정시 수능 40% 이상 선발
- 수시 학생부(교과와 종합) 졸업예정자 80% 이상, 수시 논술과 정시 수능전형은 졸업자가 70% 수준
- 대입전형 모집인원 자율화로 해결[적정 규모 연구결과, 학생부교과 20%, 학생부종합 40%, 논술 및 실기/실적 15%, 수능 30%]
- 대학별로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의 학교장 추천 인원은 미 제한 및 일정 기간의 졸업자까지 추천 허용

2028학년도 모집인원 적정 규모(설문조사)



## 입시수요와 모집인원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III)

### 정책제언

○ 정시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선발 권장 폐지, 대학 자율적 결정(사업 연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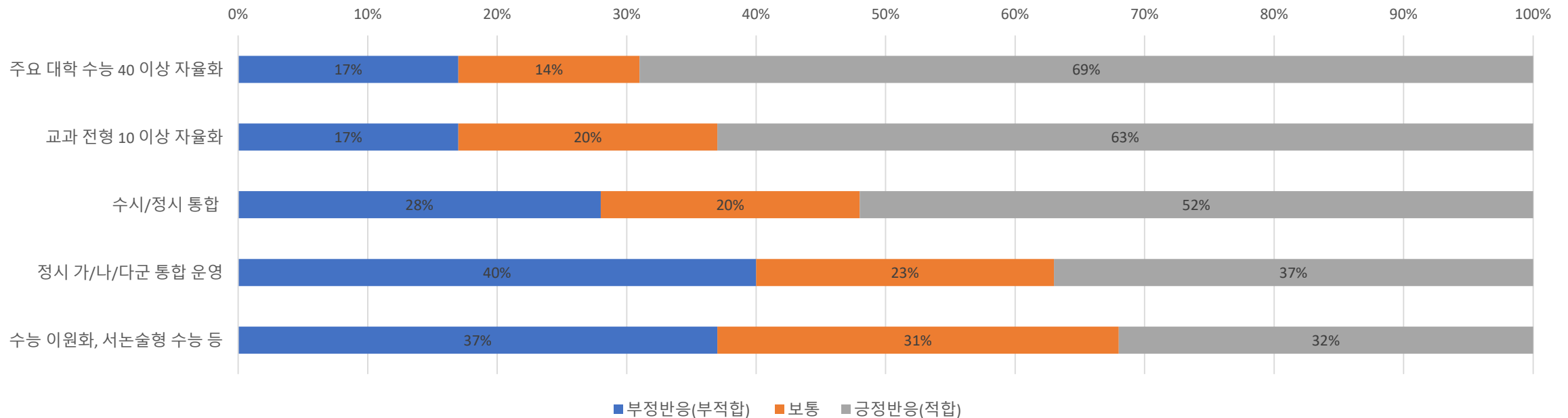
1단계: 수도권 모든 대학 정시 수능 30% 수준으로 통일 조정 [연구결과,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정시 수능전형 적정 규모 30% 수준]

2단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모집인원 비율 자율화

○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맞춰 논술전형의 점진적 축소 기조에서 대학 자율적 결정(사업 연계 제외)

○ 수시+정시 통합, 또는 수시+정시 입시 일정 조정(수시 9월 → 수능 후 11월초)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걸림돌 해소 방안(2)(델파이조사)



## 연구 활용 방안

- 본 연구 결과 도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방안은 연구에 참여한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4개 대학이 실제 2028학년도 대입전형 설계 시 참고 자료 활용
- 고교에는 대학의 202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안)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진학 가이드 지침을 제공하여, 입시 준비 방향 설계  
특히, 교과 이수현황을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은 계열별(모집단위별) 권장 이수과목 또는 이수학점(과목수) 사전 안내 필요
- 2025학년도 고1학생의 수험 준비를 위해, 2025년 상반기 내에 2028 대입전형계획(안) 개요 발표 검토(세부사항 2026년 3월 대교협 입력)

**감사합니다**